

영어입말담화에서 비제한which절에 대한 분석

조영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은 학생들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있게 인식할수 있도록 교수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406페이지)

현시기 외국어교수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이 언어사용의 규범과 규칙들을 정확히 습득하고 옹계 활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비제한》과 《제한》이라는 말은 정보의 두가지 류형들을 관습적으로 구별하는 말이다.

제한절이 규정되는 대상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절이라면 비제한절은 규정되는 대상에 대한 그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절이다. 제한적인 정보는 어느 한 대상(주로 명사나 명사구)을 다른 대상과 구별함으로써 구체화한다.

이 글에서는 영어입말담화에서의 비제한which절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입말담화에서 동격의 비제한기능류형뿐아니라 비제한which절들을 구분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담화에서 문법의 특성을 옹바로 리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글말본문에서는 비제한which절이 흔히 반점으로 구분되며 제한which절들은 관습적으로 구두점이 없이 명사구의 핵심단어뒤에 놓인다.

례: ① The rare books and manuscripts from Lambeth were set up in the East Room, which was so arranged that Lambeth books on one side of it and Cambridge books on the other, while in the South Room, the ... (람베스의 진귀한 도서들과 원고들은 동쪽방에 전시했는데 람베스의 도서들을 한쪽에 놓고 캠브리지 도서들을 다른쪽에 놓도록 했습니다. 한편 남쪽방에는...)

② Moreover, the library found many of the books which were sent, especially fiction, unsuitable for admission to a learned library.

(게다가 그 도서관에 들어온 도서들중 많은것들 특히 소설들이 전문가도서관에는 적합치 않는것으로 보았지요.)

입말언어자료들에서는 지적된 《which》앞의 휴지나 억양중단들이 많은 경우 《제한》이라는 해석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실례들이 분석자들에게는 모호하지만 그러한 모호성이 대화참가자들에게 교제상 그 어떤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음의 실례에서 which절은 언급된 계획(사립학교계획)을 다른 모든 학교계획(제한관계절)들과 구별하는것으로 혹은 의미내용(비제한관계절)의 전일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생략될수 있는 초과정보로 능히 해석될수 있다.

례: He didn't pass his medical because of his eyesight er so he was sent out to New Zealand on a public school scheme which sent these young lads out at about the age of eighteen whole batches of them to learn farming in New Zealand and he never came back. (그는 시력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사립학교계획에 따라 뉴질랜드에 파견되였는데 이 계획은 18살정도의 청년들을 뉴질랜드에 파견하여 농사를 배우도록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시다.)

다음의 실례는 제한관계절과 비제한관계절을 구별함에 있어서 또 다른 난점을 보여준다.

례: That changed again, a few years later they passed some law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did enable the government to ... to do um ... visa res- ... restrictions. (그것은 다시 변경되었는데 몇년후에 그들은 몇가지 법조항들을 또는 그러루한것을 내왔으며 그것은 정부로 하여금 사증제한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의 실례에서 which절은 기본명사 《laws》를 수식하는 제한관계절이나 《their passing some laws》의 전체 사건을 가리키는 비제한관계절로 해석될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정황에서 제한관계절과 비제한관계절을 구별할 필요성이 실천적인 교제에서는 의의가 없는것으로 볼수 있다.

입말문법의 대화에서처럼 관계절들은 글말문법에서 설명하는것들과는 아주 다른 형태를 가질수 있다.

다음의 실례에서 which절을 비제한which절로 볼수 있다고 해도 기본명사로부터 거리가 아주 멀고 《선행절 + which절》과 같이 잘 조직된 구조와도 명백히 다르게 보인다.

례: (3명의 대화자들이 거부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다.)

A: You said as they get older, they z- -- they eat more vegetable matter.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들이 식물질을 더 많이 먹는다고 말했지요.)

B: Yeah. So I'll have to b- feed her. (예, 그러니 식물질을 먹여야겠구만.)

A: And grapes. (그리고 포도두.)

B: I'll have to feed her lettuce. (부루도 먹여야겠지요.)

C: Will the protein ... needs go down? (단백질수요가 떨어질가?)

B: At a time. (떨어질 때가 있지요.)

A: (laugh) (웃는다.)

C: Or. (혹은.)

B: I guess. (내 보건대.)

A: No, you know what he's. (아니요, 당신은 거부기가 어떤건지 알지요.)

B: That's what I've read. (그건 내가 책에서 본겁니다.)

A: He's such a softie, he - You know what they do eat ... that he refuses, which would be easy to feed, cheap. (그놈은 정말 얼간이야. 그것들이 뭘 먹는지 알지요. 그건 안 먹고, 그러니 키우기 쉽고 녹기도 하고.)

B: I'm not gonna give them goldfish. (난 그것들에게 금붕어는 주지 않겠어요.)

우의 실례에서 핵심명사구 《vegetable matter and grapes》와 which절사이의 거리는 8명의 대화자다음이며 그사이에는 8개의 절들이 있다.

동격의 비제한which절들을 구분하는데서의 일부 난점들이 다음의 실례들에서 나타난다.

례: But one thing we have to be careful of, that I mentioned ... to Jim, and I've mentioned it to Pat lightly, which is ... to be careful about saying things, you know, like in board meetings?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것이 있는데 난 그걸 짐에게 말했습니다. 패트에게도 약간 언급했는데 리사회회의들에서 발언들을 주의하자는거지요?)

우의 실례는 비제한관계절의 두가지 류형에 다 알맞는것으로 볼수 있다. 즉 주절구조의 가운데에 있기때문에 동격절이라고 할수 있으며 which절을 《and that is to be careful about

saying things》와 같은것으로 바꿀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비제한관계절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동격 및 계속적비제한관계절들을 구별하는데서 또 다른 난점은 주절과 마감위치의 상황절사이에 있는 which절의 경우이다.

례: [But they] didn't even do a urinalysis...which I think is ridiculous ...when she went in yesterday. (어처구니없는건 그가 어제 갔을 때 그들은 오줌검사도 하지 않았지요.)

우의 실례에서는 which절을 비제한으로 볼수 있는데 그것은 which절이 주절에 삽입되어있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긴 휴지(대본에서 나타남)와 억양중지다음에 when-상황절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리유로 그것은 완결된 문장의 보충으로 볼수 없으며 문장마감으로도 볼수 없다. 전체 문장이 《But when she went in yesterday, they didn't even do a urinalysis, which I think is ridiculous.》와 같은것이였다면 비제한관계절의 준류형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입말에서는 끝위치에 상황절들(주절+상황절)이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며 그것들은 《상황절+주절》과는 판이한 영향을 서로 주는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의 실례에서 which절을 동격으로 혹은 비제한으로 단정하는것은 일면적이라고 볼수 있다.

which관계절이 들어있는 복합문들은 관계절들의 이중기능으로 하여 비제한관계절의 준류형들을 구분하는데서 난관을 조성한다. 아래의 실례에서 주절에 《an unequal relationship》이라는 명사구가 있는데 그다음에 비제한관계절이 놓인다.

례: (두명의 대학교수들이 사람들호상간의 교제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다.)

A: But uh there's an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me and the advertiser. (하지만 나와 광고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B: Yeah.(예.)

A: Which colors all of the communication, after that. (그것이 모든 교제에 영향을 줍니다.)

B: Yeah. Well, I think that's true. (예, 옳은 말입니다.)

담화의 견지에서 which절은 주절의 핵심구조에 관계없는것이 아니다. 이 which절이 없으면 주절은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한편 구조적 견지에서는 which절이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것으로 하여 비제한으로 볼수 있으나 담화의 의미적전일성은 앞선 절에 통합적인것으로 즉 동격으로 취급할것을 요구한다. 특히 복합절들에서 which절이 마감위치에 놓이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제한절로 되는것이 아니다.

which절의 구조적류형을 결정하는데서는 교제수단으로서 억양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부 경우들에 판단을 문장론적구조에만 기초하는가 혹은 운율이나 의미적전일성에 토대하는가에 따라 비제한관계절의 기능류형들에 대한 모순적인 구분이 있을수 있다.

례: (두명의 결혼한 녀성들이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다.)

A: They're never gonna have hard times.

(그들은 어려운 때를 체험해보려 하지 않아요.)

B: Hard times do train you.

(고난의 시기가 사람을 키우지요.)

A: Yep.(옳습니다.)

B: They do.(그렇지요.)

A: Like I came over here to work with Deborah, which is what I'm going to do, I'm going to do some translations for her and stuff? (데보라와 일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건 내가 체험해보려 하는것인데, 난 그와 그의 사람들을 위해 번역 같은걸 하려고 하는데 일없어요?)

우의 실례에서 **which**절의 앞뒤에 있는 3개의 절들을 경과하면서 올라가는 억양양상은 비록 문장론적구조적으로 **which**절이 개별적이며 비제한적인 구조라는것을 명백히 나타내지만 **which**절이 대화자 A의 전반적인 계획의 통합적부분이며 따라서 동격으로 능히 볼 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동격 및 계속적인 비제한관계절들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서 운물에 대한 그 어떤 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환경들에서는 그러한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자료기지에서 도합 692개의 비제한관계절들의 실례들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거의 대다수(508개 즉 71.24%)는 계속적류형이었다. 분석결과 그것들가운데서 대부분이 평가적특성이 강하며 《which》다음에 오는 동사로는 각이한 형태의 계사 《be》(is, was, are, be 등)가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동사의 시칭은 대다수가 현재형이며 많은 담화표식들과 양태적표현들이 《which》다음에 놓인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비제한관계절들에서 흔히 쓰이는 문장구조는 《which+modal expressions (including discourse markers)+is》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영어리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